

전주發 ‘착한 임대운동’ 정부도 동참한다

건물주 임대료 깎아주면 소득·법인세 감면 정부가 절반 부담 시장내 점포 20% 이상 인하 혜택엔 화재 안전 패키지 제공도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이 소득·법인세 감면 등 정부 지원으로 이어졌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운동은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14명)를 시작으로 14일 전주 주요상권 64명의 건물주로 이어졌다. 이들은 5~20%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하는 등 상생 협력에 동참했다. 이는 전주를

넘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며 “민간의 착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그 절반을 정부에서 부담하겠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기로 하는 법 개정을 통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간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공동체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차례 살·국장, 과장, 동장이 참여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경제적 타격을 받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상생실현인 ‘착한 임대운동’이 드디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냈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고 도시 공동체가 복원되는 ‘사람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닭·오리 농가는 입식 전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닭·오리 농가 입식 전 사전신고하세요”

정읍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신고 의무화’

정읍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닭·오리 농가는 입식 전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사육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과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통한 가축 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정읍시는 닭·오리 농가에 입식 사전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효과적인 방역과 역학조사 체계를 갖추게 됐다. 축산법에 따라 닭과 오리 사육 농가는 입식 전에 빈 농장을 청소, 소독하고 방역 관련 소독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한 후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 사전입식 7일 전까지 시청 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농장주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도 새롭게 강화됐다.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농장 출입자와 차량 등에 대한 출입 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도 구비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사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활한 시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3·1운동 101주년 가로기 내건 고창군 고창군이 3·1운동 101주년을 맞아 고창의 독립유공자를 알리는 가로기를 거리 곳곳에 내걸었다. ‘의향 고창이 높을고창으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등의 내용과 일광 정사해 선행 등 고창군 독립운동가 82명의 이름과 업적 등을 담았다. 고창군 관계자는 “3·1절 101주년을 맞아 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자 가로기를 내걸었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관광 앞장 설 청년PD 발굴

관광두레PD, 다음달 18일까지...지역 4개 사업체 컨설팅

순창군은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PD를 뽑는다고 1일 밝혔다. 청년 PD는 현재 활동 중인 관광두레 PD를 옆에서 지원하며, 새롭게 지역에 뿌리내릴 신규 관광사업체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광두레PD는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관광사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에서 창업, 성장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밀착 지원한다. 관광두레PD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사업단이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 창업 및 육성 지원을 위해 ‘관광두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순창

군만 관광두레PD가 활동 중이다. 순창 관광두레PD는 내년까지 치유범영농조합법인, 소소한 방아실, 성남들, 깨우치는 놀이 연구회 등 지역 4곳의 사업체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특히 소소한 방아실의 경우, 클라우드 펀딩 콘텐츠 제작과 예비오피스 지정을 도왔으며 올해는 법인화 작업과 브랜딩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PD 희망자는 다음달 18일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나 순창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tourdure2020@kcti.re.kr)로 제출하면 된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남원 쌀, 제주도민 입맛 사로잡기 나서

남농영농미곡종합처리장 연간 500여t 신규 공급

남원시는 남농영농조합법인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백미·잡쌀·현미 등 전국 공급업체로 선정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연간 500여t을 신규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미종합처리장을 대상으로 시설행대회를 추진했다.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가을철 안정적 산물벼 출하와 고품질쌀 안정적 유통 시설 확충을 위해 벼 투입구 확충과 건조·보관시설, 도정시설 등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시설행대회를 추진했다. 남원시는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농산물 소비시장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지난해 남농영농법인에 국비 2억100만원, 시비 6300만원, 자부담 1억4700만원 등 총 사업비 4억2000만원을 들여 도정시설·색체선별기·컨트롤시스템 등 획기적인 설비를 갖췄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는 안정적 식량산업의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라면서 “서울 수도권에서 제주까지 남원 최초로 전국 고품질쌀 공급망도 개척하게 된 만큼 농업·농촌 경쟁력 향상과 식량산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익산 황등중·성일고 앞 도로 확 바뀐다

폭 8m→12m 확장...도시계획시설 변경 추진

익산시는 황등면 소재지의 좁고 불편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도로는 황등신협 삼거리에서 삼기방면 황등중·성일고 앞길 도로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폭이 약 8m로 협소해 인도 등 설치가 곤란하고 사고 우려에 따른 도로 확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곳이다. 익산시는 이 도로의 이용현황 분석, 교통량, 주변 도로망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로폭을 약 8m에서 12m로 확장해 통학로를 확보하고, 동연지하차도와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도로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익산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 중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3월16일까지 황등면 행정복지센터나 도시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주민 의견 수렴이 마무리 되면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해당도로가 확장 개선했을 경우 안전한 통학로 및 보행공간 확보는 물론 황등면 소재지 내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 도로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약 42억원을 적기 확보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